

늘어나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그러나 과소대표 된 여성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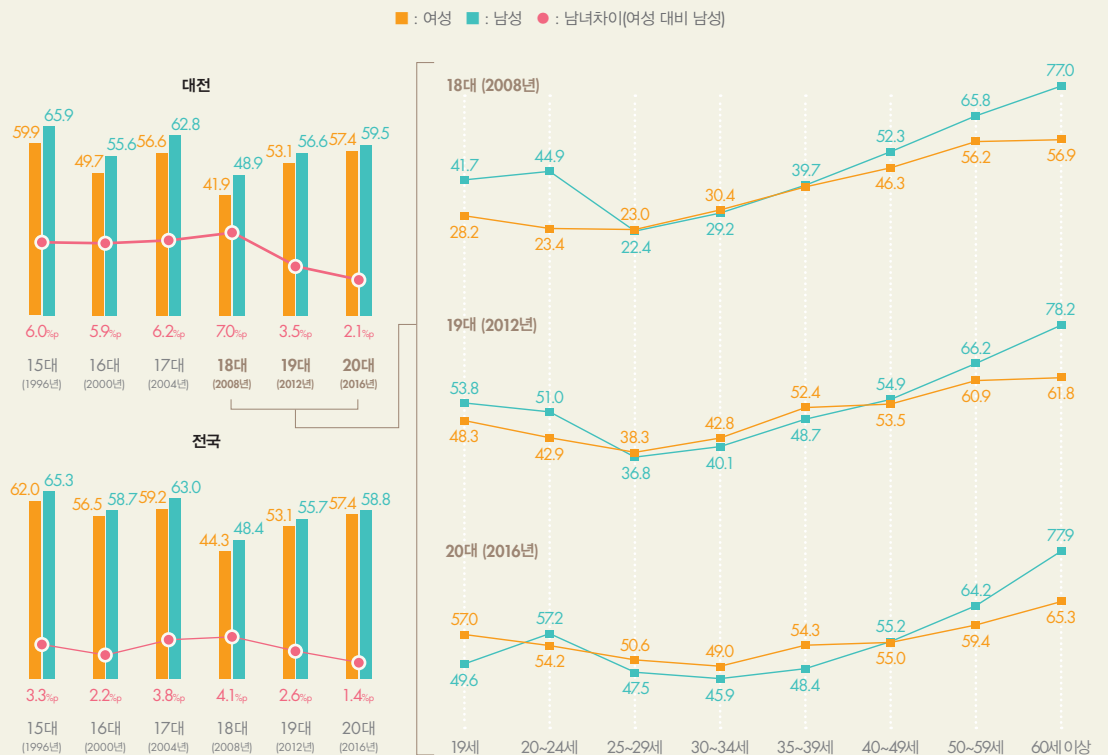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한 사회의 정치문화 수준과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16대 선거까지 한 자리 수에 머물던 여성 의원 수는 17대 선거(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에 들어 두 자리 수에 진입했으며, 꾸준히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9명, 비례대표 28명의 여성이 국회로 진출했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수다. 그러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유권자로서 여성의 투표 참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투표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격차 점점 줄어들어

15대부터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대전의 여성 투표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2년 19대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편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꼽고 있다.¹⁾ 그렇다면 대전 여성, 남성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어떠한 곡선을 그릴까? 여성은 18대 선거부터 20대 선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저연령층(19~29세)의 투표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남성은 현저히 낮았던 25~34세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으나 40세부터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투표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19세와 25~39세의 여성 투표율은 남성을 앞질렀다.

15~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



1) ① 김옥렬·이경숙(199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1권, 7-89.
 ② 김재한(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노동효과',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183-206.
 ③ 윤종빈·정승희·정희옥(2018)의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177-205.
 ④ 이갑윤(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14권 제2호, 93-115.
 ⑤ 지병근(2013),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 3권 1호, 49-72.
 ·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표본조사 자료임(전체 선거인의 일부를 표본수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과 오차가 발생함)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투표율 자료는 표본 분석 후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공식되지 않음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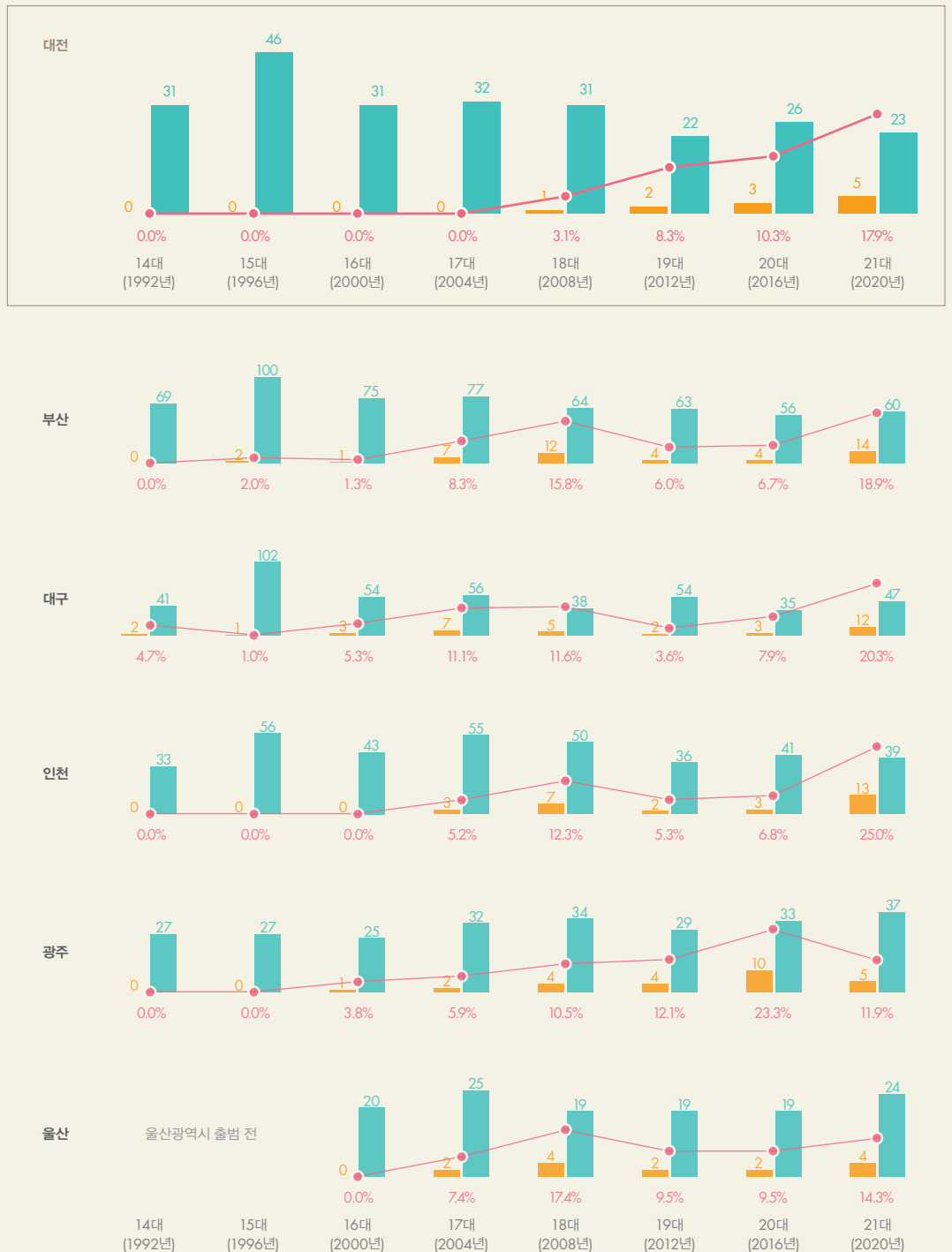
여성 후보자 수 증가하고 있지만, 유리천장 여전히 견고해

1992년 14대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6대 광역시를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자 수를 살펴봤다.

14~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이

1992년 14대부터 2004년 17대까지 대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여성은 없었다. 2008년 18대 선거에 들어서 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20년 21대 선거에서는 총 5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6대 광역시 중 4위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가 나온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후보자 중 26.4%(여성 14명, 남성 39명)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 20.0%(여성 12명, 남성 48명), 부산 18.4%(여성 14명, 남성 62명), 대전 17.9%(여성 5명, 남성 23명), 울산 14.3%(여성 24명, 남성 62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은 광주로 11.9%(여성 5명, 남성 37명)에 그쳤다.

■ : 여성 후보자 ■ : 남성 후보자 ● : 여성 후보자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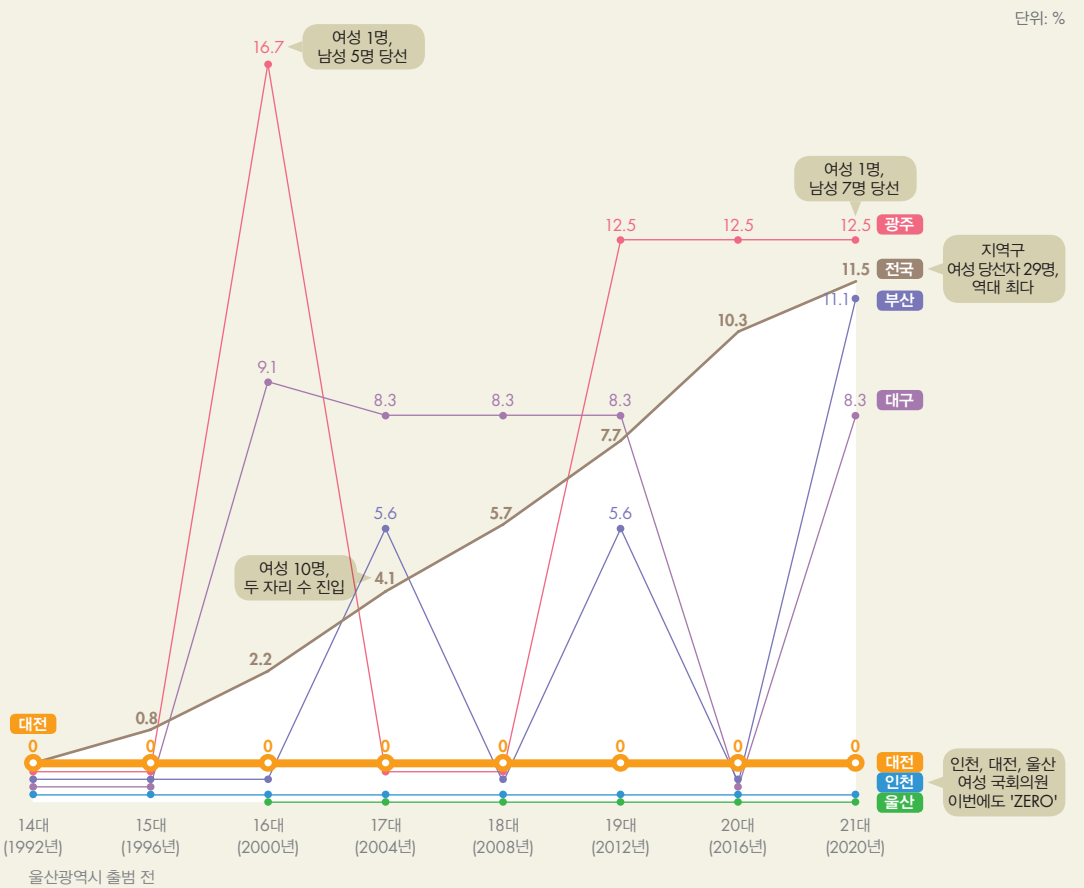
·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대전 29년 간 8차례에 걸친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0명'

1992년 14대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전국 및 6대 광역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살펴봤다.

14~21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추이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0%, 15대 0.8% 16대 2.2%로 이때까지 여성 당선인은 아예 없거나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10명, 4.1%로 두 자리 수에 진입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의 여성 당선인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을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대전시 출범 이래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인천과 울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당선인비율이 나온 지역구는 광주(12.5%)였다. 이어서 부산 11.1%, 대구 8.3% 순이었다.



*전국 여성 당선자 비율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로 산출함
 *21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는 당선자 수는 4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
 ·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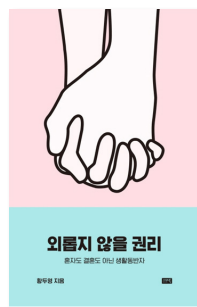
젠더 콜로키움 # 비혼 # 생활동반자법 # 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2020년 제2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7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법
일시 2020년 5월 29일(금)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해 총 인원 20명 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두영 작가

1984년 출생.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투표시간 연장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 소라넷 폐지 등을 기획했으며, 국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내용을 제안했다. 2020년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라는 책을 펴냈다.